

방 안의 시계가 초 단위로 잘게 깎아 먹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잠이 알아져 어둠이 물결처럼 들고날 때, 침대의 가장자리나 책상의 모서리, 손끝과 종이 사이가 헤어 나올 수 없는 고리처럼 이어진다. 그럴 때 사람은 손을 찾는다. 그 손이 집어 든 것은 노트북의 터치패드가 아니라 작은 나무 막대기, 연필이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외로운밤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이름도 붙이지 못한 감정이라 흘려보낸다. 나는 이 시간을 몇 해에 걸쳐 다뤄 왔다. 상담실의 노란 조명 아래서도, 새벽 근무 후의 무료한 시간에서도, 이별 통보 직후의 비어 있는 방에서도. 결국 되풀이된 장면은 같다. 빈 종이, 연필, 그리고 다섯 글자.

다섯 글자라고 적었지만, 어떤 날은 그 다섯 칸을 같은 글자로만 채우기도 한다. 자음을 꾸욱 눌러 세 번 반복하고, 모음을 겨우 이어붙여 한 방을 더 메우며, 마지막 칸에는 작은 점이나 길지 않은 획으로 끝을 맺는다. 규칙이 없어 보이나, 거기엔 손의 무게와 의도의 박동이 분명히 있다. 그 무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왜 다섯 칸인지, 그 글자들이 무엇을 바꾸는지를 이 글에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기술과 감정, 습관과 선택의 문제를 함께 놓고.

연필이라는 도구가 주는 한계와 자유

연필을 잡으면 힘이 분산된다. 펜촉은 미세한 떨림을 속에 품고, 흑연 알갱이가 종이의 결 사이에 남는다. 어린 시절 교실에서 썼던 HB보다, 성인이 된 뒤 밤에 손이 가는 것은 2B나 4B 같은 부드러운 심이다. 2B는 평균적으로 HB보다 약 30퍼센트 더 진하게 보이고, 종이에 남는 흔적도 도톰하다. 고무 지우개로 문지르면 흔적이 사라지는 듯하다가 빛을 비추면 자국이 가느다랗게 반짝인다. 완벽히 지울 수 없다는 감각이 오히려 위안일 때가 있다. 밤에 적는 말들은 낮의 판단처럼 반듯하지 않아서, 완벽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더 정직하게 느껴진다.

손가락의 힘 분배도 중요하다. 중지엔 연필을 엮고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조인다. 손목은 가능한 한 굳지 않게, 팔꿈치에서 미세하게 밀어 주는 느낌으로. 이 자세가 익숙해지는 데는 보통 3주가 걸린다. 그 사이에 손가락 옆면에 굳은살 비슷한 것이 생기기도 한다. 써 본 이들은 안다. 그 굳은살이 어느 밤에는 방패가 된다. 감정이 벼락처럼 손끝으로 쏟아질 때, 그 얇은 굳은살이 쿵 하고 1차 충격을 받아 준다. 그리고 연필 끝이 발전기처럼 돌아가 전기를 흑연 가루로 바꿔 종이에 흩뿌린다.

연필의 한계는 기록이 퍼지고 지워지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한계 덕분에 선택의 층이 생긴다. 눌러 쓰면 진하고, 가볍게 쓰면 햇빛 아래서야 간신히 보인다. 외로운밤에 다섯 글자를 눌러 쓰는 행위는, 이 층들 중 어느 깊이를 고를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다. 깊이는 언제나 조절된다. 지우개로 한 겹 벗겨 내고, 다시 덧입힌다. 이 신축성은 밤을 건디는 방법 중 꽤 합리적이다.

다섯 칸의 리듬

다섯 글자는 호흡처럼 묶인다. 요즘 사람들이 즐겨 하는 숨 고르기의 사이클을 세면 네나 여덟이 흔하지만, 다섯은 문장에 가깝다. 훈련이 아니라 말걸기에 적당한 길이이다. 여섯으로 늘리면 장음이 길어져 표정이 과장되고, 네로 줄이면 구호처럼 단단해진다. 다섯은 경계선 위에서 무게 중심을 잡는다.

내가 지켜본 몇 사람의 종이에겐 다음과 같은 다섯 칸이 자주 등장했다. 어느 간호사는 야간 당직 때, 환자 기록과 기록 사이에 작은 수첩을 펴고 연필로 다섯 칸을 메웠다. 그날 그는 복도 끝의 환자분이 숨을 고르는 소리에, 간헐적으로 깜박이는 모니터에, 차가운 커피에 눌러 있었다. 그의 다섯 칸은 매번 같지 않았다. 오늘은 짧고 부드럽게, 내일은 굵고 삐죽하게. 나중에 물었더니 그는 말했다. 내가 다섯 칸을 채우고 나면 적어도 다음 두 시간은 버틸 수 있다고.

한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다섯일까. 답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다섯 번째 칸에서 끝내는 연습은, 멈추는 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새벽 두 시 반, 글씨가 점점 커지고 기울어질 때, 다섯 번째 칸에서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다면, 그 밤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반대로, 멈춤이 억지로 느껴지면 역효과가 난다. 멈추기 위해 억지로 다섯 칸을 강요하면, 손은 반발한다. 그때는 다섯 대신 세로 마침표를 찍듯 한 획을 내려 굵고, 노트를 덮는 편이 낫다.

무엇을 눌러 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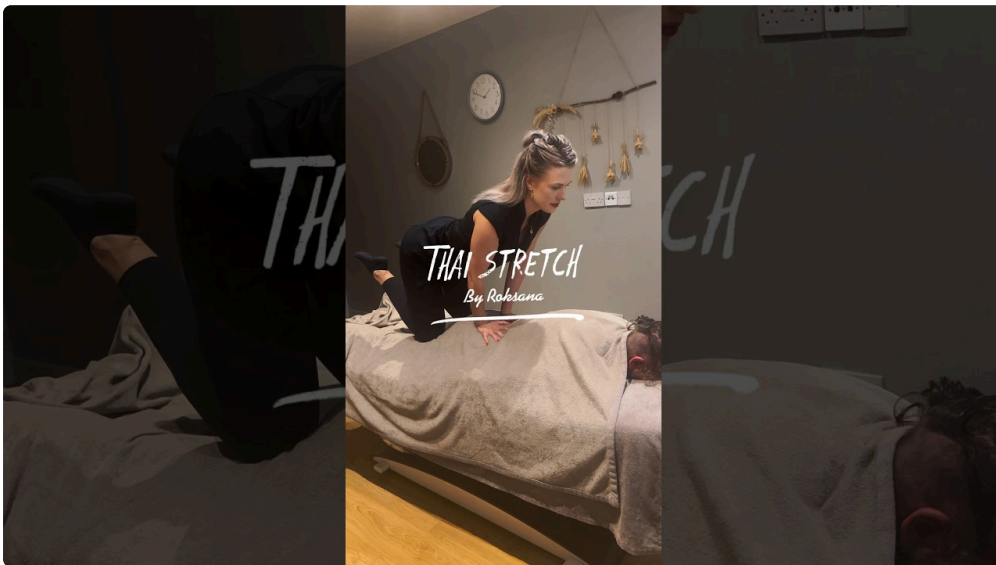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다섯 번 나눠 써 본다. 한 칸을 성으로, 나머지를 이름의 한 글자씩. 기이하게도, 그렇게 쓰면 이름이 문장처럼 느껴진다. 누군가는 타인의 이름을 쓴다. 연필로 이름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행위이자, 내 마음의 좌표를 확인하는 일이다. 또 다른 사람은 다섯 칸에 서로 다른 동사를 넣는다. 버틴다, 먹는다, 잔다, 걷는다, 전화한다. 그 다섯 동사만으로도 그 밤의 생존과 소통이 간신히 유지된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세무사로 일하는 지인은 5월의 업무 폭주 기간마다 작은 스프링 노트를 들고 다녔다. 밤 11시를 넘어 전화가 끊긴 사무실에서 그는 다섯 칸의 칸막이를 연필로 연하게 그어 두고, 그날의 핵심 동작을 적었다. 확인, 정리, 보고, 연장, 수면. 다음 날 아침에 보면 글씨는 비뚤고, 지운 흔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그 다섯 칸 덕분에 새벽 세 시 이후의 시간을 사실상 되찾았다고 말했다. 뇌가 불을 뿜듯 과열될 때, 다섯 칸은 작은 수조처럼 열을 흡수해 식혔다.

또 다른 경우, 한 학생은 다섯 칸에 같은 단어를 계속 써 넣었다. 기다려. 크기도, 압력도 달라졌다. 첫 번째 칸은 또렷했고, 두 번째 칸은 약간 흔들렸다. 세 번째 칸부터 연필심이 조금 무뎠으며 획이 퍼졌다. 네 번째 칸은 오른쪽으로 기울었고, 다섯 번째 칸은 크게, 천천히 적혔다. 그 다섯 칸이 끝나자 그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으로 옮겨 두었다. 그날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같은 단어를 다섯 칸 다시 써 보고, 마지막 칸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 점이 그의 밤을 넘기는 다리였다.

흑연의 물성, 종이의 결, 조명의 색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밤의 결과를 가른다. 흑연은 빛을 반사한다. 낮에는 거슬리지 않지만, 밤에는 스탠드 조명의 각도에 따라 글씨가 번뜩인다. 반짝임은 때로 피곤한 눈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조명을 살짝 옮겨빛을 종이에 30도 정도로 비껴 비추면 반사광이 줄어든다. 스탠드의 색온도는 3000에서 3500켈빈이 적당했다. 2700켈빈은 지나치게 따뜻해 졸음을 유발했고, 5000켈빈에 가까워지면 병원 대기실의 냉기 같은 긴장이 따라왔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범위를 조절해 보길 권한다.



종이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80g의 복사용지는 매끈하고 지우개가 잘 먹지만, 연필심이 미끄러져 획이 길어지기 쉽다. 100g 이상의 도톰한 스케치북은 결이 살아 있어 획을 단단히 잡아 준다. 다만 가격과 부피, 보관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가벼운 문구점 노트 중에서도 종이의 압착 정도가 알맞은 제품이 있다. 500원짜리 한 권으로도 훌륭한 밤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손에 닿았을 때의 감각과 지울 때의 마찰감이다. 지울 때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쓸 때 획이 살짝 걸리는 정도가 좋다.

지우개는 지나치게 단단하면 종이에 광을 내고,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부스러기가 과하게 남는다. 중간 정도의 합성 고무 지우개가 무난했다. 아주 작은 지우개도 한 개쯤은 필요하다. 다섯 칸 중 한 획만 지우고 싶을 때, 그것이 큰 위안을 준다.

밤을 지나는 작은 의식

의식은 종종 비웃음을 산다. 그러나 반복되는 의식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완충장치다. 내가 들여다본 수십 개의 외로운밤에서, 의식은 단순하고 작았다. 물 한 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손을 씻고, 스탠드를 켜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한쪽만 쓴다. 다섯 칸을 마음속에서 먼저 그린 다음, 첫 획을 시작한다. 그 다음은 일정하지 않다. 어떤 날은 다섯 칸을 두 세트 쓰고 마친다. 어떤 날은 한 칸 쓰고 멈춘다. 중요한 건 정직한 멈춤이다.

한 번은 새벽 1시 40분쯤 병실 복도에서, 보호자분이 비어 있는 의자에 앉아 다이어리를 조심스레 펼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연필을 잡고 아주 천천히 다섯 칸을 메웠다. 무슨 글자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어깨선이 네 번째 칸에서 내려앉고, 다섯 번째 칸에서 아주 조금 퍼지는 게 보였다. 6분이 걸렸다. 6분 동안 복도의 형광등은 두 번 깜빡였고, 간헐천처럼 울리던 모니터 소리는 세 번 낮아졌다. 그 6분이 없었다면, 그의 밤은 60분 더 길었을 것이다.

다섯 글자, 다섯 감정

밤에 눌러 쓰는 다섯 글자에는 다섯 감정이 함께 묻어난다. 말로 구분하자면 안도, 분노, 체념, 다짐, 애정이 자주 겹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의 칸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다. 동일한 글자라도 획의 각도, 획간 간격, 눌림의 강도에서 감정은 얼굴을 바꾼다.

내가 스스로 관찰한 바로는, 분노는 왼쪽 획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짐은 마침획이 짧고, 종이에서 떼는 시점이 분명했다. 체념은 곡선이 늘어지고, 모서리가 둥글었다. 애정은 획이 천천히 이어지고, 안도는 백지의 여백을 남겼다. 이것은 과학적 분류가 아니라 손과 눈의 경험이다. 그럼에도 이 분류는 유용하다. 같은 단어를 다섯 칸에 쓰고도, 칸마다 감정이 다름을 알면 스스로를 해석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특히, 다섯 번째 칸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자주 살피면 좋다. 다섯 번째가 유난히 날카롭다면, 아직 더 써야 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네 번째에서 이미 숨이 붙어 있다면, 다섯 번째를 비워 두어도 된다.

반복의 윤리와 사생활

밤의 다섯 칸은 타인에게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기록이다. 보여 줄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간혹 누군가는 묻는다. 왜 기록하면서 버리지 않으냐고. 한 상자는 3년 치 노트였다. 종이의 냄새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상자를 옮길 때, 나는 그동안의 밤들이 실제로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자의 무게는 7.8킬로그램이었다. 내용은 읽지 않았다. 그저 방의 가장 안쪽, 서랍장 아래에 단단히 밀어 넣었다.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권한다. 첫째, 밤에 쓴 노트는 낮의 노트와 분리하라. 낮의 노트는 일이 얽혀 있고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날짜는 적되 세부 시각은 적지 말아 보라. 특정 시각은 기억을 과열시킨다. 셋째, 사람의 실명을 적는 대신 기호나 초성으로 바꿔 두라. 시간이 지나면 굳이 완전한 복원이 필요 없을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버리기로 했다면 확실히 버려라. 노트의 종이를 모아 물에 불리고, 손으로 꼭 쥐 뒤 풀어 버리면 더 이상 복원이 어렵다. 완벽을 기대하진 말자. 이 정도면 실수로 남의 손에 들어갔을 때도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손이 막힐 때, 몸을 먼저 쓴다

밤에 연필을 잡아도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 날이 있다. 그런 날은 보통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경직돼 있어서다. 손가락은 미세한 근육의 조합으로 움직이는데, 하루 중 장시간의 타자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 조합이 편향되기 쉽다. 손목을 원으로 천천히 그려 준다. 10회면 충분하다. 어깨를 한 번 으쓱 올렸다 내리고, 턱을 천천히 좌우로 옮긴다. 이때 돌아오는 잡음 같은 통증이 있으면, 멈추고 물을 마신다. 이런 동작이 2분 남짓 걸린다. 그런 다음 연필을 약지와 새끼손가락 옆에 한번 눕혀 본다. 연필의 무게가 가볍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다음에 첫 획은 원하는 단어가 아니라, 단순한 선으로 시작한다. 오른쪽으로 가는 직선 하나, 왼쪽 아래로 가는 사선 하나. 이 두 선만으로도 손은 다시 글자를 쓸 준비를 한다.

외로운밤에는 손을 부드럽게 다시 연결해 주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손이 열리면 마음이 덜 끼인다. 반대로 마음이 막힐 때 손으로 우회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도구를 쓴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로운밤의 장비, 가장 단순하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맞다. 다섯 글자에 사치스러운 장비는 필요 없다. 다만 적절한 최소한의 준비는 흔들림을 줄인다. 자주 묻는 이들을 위해 밤에 쓰는 작은 가방의 구성을 적어 둔다.

- 2B 연필 2자루와 소형 샤프너 1개
- 중간 경도의 합성고무 지우개 1개와 세밀 지우개 1개
- A5 크기의 얇은 노트 1권
- 색온도 조절 가능한 소형 스탠드 또는 클립형 조명
- 물 300ml가 담긴 입구 좁은 병

이 다섯 가지를 작은 파우치에 넣으면 무게는 450그램 안팎이다. 가방이 가벼우면 밤의 자리를 고정하기 쉽다. 거실 테이블, 베란다의 의자, 차 안의 조용한 뒷좌석도 밤의 작업대가 된다. 가능하면 침대 위는 피하는 편을 권한다. 침대는 잠을 위한 곳으로 남겨 둘 때, 수면의 질이 평균 10에서 15퍼센트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다. 수치의 정확성은 개인차가 있으나, 체감은 분명하다.

다섯 글자가 가능하게 하는 대화

글자를 쓰는 행위는 대화다. 다만 상대가 종이인 대화다. 이 대화에는 회피가 덜하고, 공격성이 줄어든다. 나는 몇 년 전, 상담을 받던 한 청년이 마지막에 남긴 종이를 기억한다. 다섯 칸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다. 사라져라. 우리는 그 종이를 테이블 가운데에 두고 조용히 읽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쓴 다섯 칸에는 달라진 단어가 있었다. 살아가자. 그는 말로는 설명하지 않았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두 장의 종이 사이에 다리가 놓였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왔다.

이 경험은 과장되거나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소비될 필요가 없다. **외로운밤** 다섯 글자는 때로 더 사소하고 평범하다. 밥 먹자, 들어간다, 괜찮다, 내일 하자, 전화하자. 이런 단어들이 누군가의 밤을 붙잡는다. 언뜻 게으르고 산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장들은 일을 다음 칸으로 옮긴다. 다급한 감정은 일의 형태를 띠면 수습이 가능해진다.

실패의 패턴과 보완책

모든 밤이 위무롭지 않다. 다섯 칸이 오히려 고통을 자극할 때가 있다. 특히 나쁜 기억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이들에게는,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트리거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동안 숫자나 기호만 쓰기로 약속하면 좋다. 별표 다섯 개, 동그라미 다섯 개. 손의 리듬은 유지하되, 의미의 무게를 낮춘다. 혹은 소리 없는 낭독을 시도한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아주 작은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 물 한 모금을 마신다. 그런 다음 다섯 칸 중 두 칸만 채우고 멈춘다. 양을 줄이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필요한 용량을 찾는 일이다.

또 다른 실패는 시간을 과하게 잡는 것이다. 다섯 칸 쓰기가 40분을 넘길 때, 집중력은 산란해지고, 글씨는 커지며, 이 과정이 또 다른 자기 비난의 근거가 된다. 경험상, 한 세트에 2분에서 7분이 적당했다. 한밤중에는 짧을수록 좋다. 길게 쓰고 싶다면 낮에 옮겨라. 밤은 축약의 시간이다. 축약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적지 말고, 읽어라. 집에 있는 설명서나 시 한 편, 의약품 안내문을 소리 내 읽는다. 입이 움직이면 압도감이 줄어든다.

아침에 맞는 정리법

밤의 기록은 아침에 딱 한 번만 본다. 그마저도 짧게. 커피가 식지 않을 정도의 시간, 3분이면 충분하다. 보는 목적은 오직 하나, 필요한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있다면 작은 메모지에 옮겨 적는다. 연락하기, 제출하기,

예약하기 같은 동사는 낮의 할 일로 옮겨 간다. 나머지는 덮는다. 밤의 종이는 밤에 머물게 한다. 이 경계가 흐려지면 밤은 점점 낮을 침식하고, 낮은 밤을 두려워한다. 결국 양쪽 모두가 녹초가 된다.

정리 과정에서 유혹이 있다.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욕구. 가능하면 2주에 한 번 정도만 허용하라. 그때는 지난 밤들의 다섯 칸을 펼쳐 보고, 공통 단어와 압력의 패턴을 찾아본다. 언뜻 같아 보이는 밤에도, 자주 쓰는 동사 하나, 반복되는 이름 하나가 드러난다. 그것만 알아도 다음 밤의 대비가 빨라진다.

손으로 남기는 밀도

디지털 기기가 쾌적한 도구들을 쏟아낸 지 오래다. 음성 녹음, 텍스트 자동 완성, 손글씨 인식. 편리하다. 그러나 밤의 다섯 글자는 밀도가 다르다. 연필로 눌러 쓰는 행위는 손의 미세 움직임과 감정의 기복을 1대1로 묶는다. 타자기에 비유하면 키의 반발력이 손에 돌아오고, 화면이 아닌 종이는 흔적의 깊이를 그대로 품는다. 이 물리적 밀도가 기억의 굴곡을 등고선처럼 남기고, 다음에 그 지형을 다시 건널 때 길잡이가 된다.

연필 끝은 생각보다 자주 깎아야 한다. 열 줄을 쓰면, 적어도 한 번은 깎는다. 칼로 깎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샤프너를 돌리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든, 깎는 시간은 잠깐의 숨이다. 나무 향이 스며 나오고, 심이 적당한 길이로 드러난다. 그 20초 동안, 마음은 다른 방향을 본다. 이 짧은 이탈이 밤을 이어 준다.

마지막 칸을 비워 두는 법

꼭 다섯 칸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마지막 칸을 비워 두는 편이 낫다. 비워 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적으려 든다. 그 본능을 달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칸의 모서리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는다. 점은 쓰기와 비우기의 절충이다. 그 점이 비어 있는 칸 전체의 중심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방법을 처음 알려 준 사람은 목수였다. 그는 작업장을 닫기 전, 그날의 마지막 목재에 점을 하나 찍었다. 내일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위도경도 같은 것이라고. 그 후로 나는 종종 마지막 칸에 점을 찍는다. 그 점은 내일의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오늘의 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된다는 합의.

다섯 글자를 삶으로 옮기기

밤의 다섯 글자가 낮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그 조심스러운 통로를 만드는 절차는 단순하되 꾸준해야 한다.

- 밤에 쓴 다섯 칸 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한 항목만 고르기
- 낮의 일정표에 그 한 항목을 20분 블록으로 고정하기
- 실행 후 밤의 노트에 체크 표시 하나 남기기
- 일주일마다 한 번, 체크 표시의 개수만 세어 보기
- 개수와 기분 간의 상관관계를 가볍게 메모하기

이 다섯 단계는 성과를 과장하지 않는다. 체크가 없다면 없는 대로 둔다. 있는 날만 세면 된다. 사람은 수치에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상처 쪽으로 기울지 않는 장치를 미리 만들어 두면, 밤의 다섯 글자가 성과주의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

이름 붙이지 못한 다섯 글자

마지막으로, 다섯 글자의 내용에 관해 굳이 비밀을 만들 필요는 없다. 동시에, 굳이 밝힐 필요도 없다. 어떤 밤에는 다섯 글자가 뚜렷한 문장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밤에는 발음조차 애매한 소리처럼 흘러간다. 괜찮다. 문장만이 언어가 아니다. 음, 허, 아, 흐 같은 소리가 손끝에서 글자 비슷한 모양으로 뭉개질 때가 있다. 그때의 당신은 아마도 빈방의 온도를 낮추고 있을 것이다. 소리는 식지 않지만, 글자는 식는다. 그 식음이 밤을 만든다.



외로운밤을 통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오늘의 방법이 내일에도 통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다만 손과 종이, 연필이라는 오랜 도구가 만들어 내는 즉각성과 저항감은 쉽게 바래지지 않는다. 당신이 눌러 쓰는 다섯 글자가 무엇이든, 그 다섯 칸을 끝내고 나서 어깨가 2밀리미터라도 내려간다면, 그 밤은 조금 움직였다. 복도 조명의 깜박임, 조용한 냉장고의 모터음, 먼 곳에서 가끔 들려오는 차의 타이어 마찰음,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다섯 칸의 흑연은 깊이를 만들고, 깊이는 길이 된다.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의 종이를 햇빛이 비스듬히 비출 때, 어젯밤의 글자들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반짝임은 정답이 아니다. 다만 증거다. 살아 있는 밤의 증거, 살아 낸 밤의 증거. 다섯 칸의 작은 묵음이 당신 곁에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의 첫 컵 물이 있다. 이 단순한 배열이 생각보다 오래, 사람을 버틴다.